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집단교섭 속도 4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5.14(목)

본격 제시안 제출 시작... 책임 있는 교섭나서야 주요 요구안 대부분 “검토 중” ... 유효기간 항 의견접근



금속노조 경주지부 제4차 집단교섭이 5월 14일(목) 14시, 다스지회 강당에서 진행 되었다. 교섭에 앞서 12시50분부터 다스지회 현장순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교섭에 들어갔다.

이번 교섭에는 노측 교섭위원 23명 중 22명, 사측 교섭위원 13명 중 13명이 참석해 성원을 확인하고, 사측 현대아이에이치엘 최진규 책임매니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현장 자동화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시대”라며, “이 문제를 노·사가 함께 풀어갈 것인지, 일방적으로 강해해 갈등과 파국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제시안이 제출되는 교섭인 만큼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영산업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최근 교섭과 사업장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모두 바쁜 시기”라며 “노·사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생존과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이러한 고민들이 올해 교섭 과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사측 1차 제시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우영산업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노·사 공공 대지자체 요구안, 채용 조항, 노조법 개정에 따른 교섭권 보장 조항 등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섭 업무 신설 항목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

면 제104조 협약의 유효기간 문구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토를 잘 진행하고 추가 제시안 역시 빠른 시일 안에 제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유효기간 항은 원안 수용으로 의견접근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사측 제시안 제출이 시작됐지만 주요 요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토 수준의 입장이 제시됐다.

추가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을 마무리했으며, 차기 교섭 일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노측 요구안	사측제시안
제104조 【협약의 유효기간】 (문구수정)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0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1년으로 한다	제104조 【협약의 유효기간】 (문구수정)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0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1년으로 한다(의견접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